정유공장 있는 여수, 기름값 왜 비쌀까?

화순과 ℓ당 30원 차이…GS칼텍스, 원인 분석중

“공급가 비슷하지만 땅값 등에 따라 영향 클 수도”

여수시 문수동에 사는 민모(여·41)씨는 회사 업무로 일주일에 한 번가량 화순으로 출장을 간다. 민씨는 이 때마다 화순에서 승용차에 휘발유를 가득 넣어간다. 화순이 여수보다 ℓ당 30원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남지역에서 여수가 기름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공장이 있어 다른 지역보다 운송비가 덜 들텐데 여수의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뭘까.

10일 오후 한국석유공사 가격비교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남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값은 ℓ당 평균 1917원이다. 경유값은 평균 1726원이다.

하지만 여수지역은 휘발유가 평균 1930원, 경유가 1740원으로 전남지역 평균 가격보다 각각 ℓ당 13원과 14원 비싸다.

여수에서 가장 비싼 곳은 H주유소로 휘발유가격이 1999원이었다. 경유도 1879원으로 1900원대를 넘보고 있다.

인근 광양지역도 평균 주유소 휘발유 1930원, 경유 1747원으로 비쌌다. 목포는 각각 1929원과 1742원, 순천은 1928원과 1736원, 나주는 1896원과 1702원, 화순은 1909원과 1716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수지역의 기름값이 유독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GS칼텍스는 내부적으로 원인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여수지역의 주유소 판매가는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 내부적으로 원인을 분석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는 여수공장에서 정유된 제품을 송유관을 통해 광주·목포 등 저유소로 30% 가량 보내고 배로 60%, 탱크로리나 철도로 10% 가량 운송한다.

이 관계자는 “주유소별 판매가는 주유소 운영 형태나 서비스, 땅값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공급가격은 모두 같기 운송비용보다는 땅값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여수는 엑스포 등 개발 기대 효과의 영향이 더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예전에 여수가 기름값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 모니터 해봤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신개념CUV ‘벨로스터’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신차 발표회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대차의 신개념 크로스오버차량(CUV)인 ’벨로스터(Veloster)’는 운전석 쪽에 1개, 조수석 쪽에는 2개의 도어가 각각 배치된 비대칭 구조로 첨단 1.6 감마 GDI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140마력, 공인 연비는 15.3km/ℓ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주유소 1999원까지

휘발유값 계속 치솟아…시민가계 겹주름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가 ℓ당 1999원까지 치솟았다.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값은 1923.73원, 전남은 1917.23원으로 일주일만에 각각 48.18원, 44.55원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도 크게 뛰었다. 광주가 1732.63원, 전남은 1726.30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기름값 급등세는 향후 1~2주간 더욱 가파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서민 가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3월 첫째주와 둘째주에 걸쳐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석유제품 공급가를 ℓ당 최고 140원까지 대폭 인상함에 따라 일선 주유소 판매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주유소협회는 특히 3월 첫째주 정유 4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가 전주 대비 ℓ당 70~117원이나 인상됐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SK에너지가 휘발유 공급가를 1841원으로 ℓ당 70.5원 올렸으며 GS칼텍스는 1848원으로 71.4원, 현대오일뱅크는 1861원으로 108원, 에쓰오일은 1840원으로 73원 각각 인상했다고 주유소협회는 전했다.

경유는 SK에너지가 74원 오른 1672원, GS칼텍스가 69.2원 오른 1674원, 현대오일뱅크가 117원 오른 1690원, 에쓰오일이 79원 오른 1676원에 일선 주유소에 공급했다.

휘발유의 평균 인상가는 ℓ당 80.7원, 경유는 84.8원이었다. 주유소협회는 정유 4사가 3월 둘째주에도 석유제품 가격을 추가로 ℓ당 30~50원씩 올려 1~2주를 합친 인상폭은 최대 140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단가 계약시 원자재값 상승분 반영해달라”

지역 중소기업인들, 광주조달청장 간담회서 건의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광주지방조달청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연간단가 계약시 원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0일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남 광주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조달행정 관련 애로 및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양보승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리비아 사태 등으로 원유가격이 110달러 이상 폭등함에 따라 아스콘 원자재 가격이 대폭 오르고 원유가 추가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며 조달청에서 연간단가 계약시 이를 반영해 줄 것과 2011년도 연간단가 계약의 조속한 체결을 요청했다.

최복관 광주전남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은 “학교의 졸업앨범 제작 시 조달청을 통한 MAS계약(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수의계약 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이라며 “각 수요기관에 MAS 제도 홍보와 교육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남 광주조달청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조달청 연간 단가 계약 시 충분히 반영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게 계약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장에 대한 참여율을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최대한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 원자재 상승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88.9%에 이르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해 원자재 가격은 17.9%, 제조원가는 15.4% 각각 올랐으나 납품가격에 반영된 비율은 5.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소득 자영업자 151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구현에 나선다. 또 변칙 상속·증여 관련 법인 및 사주, 유통거래질서 문란자, 고리대부업 등 민생관련 탈세자를 올해 4대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금탈루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151명에 대해 9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전문직 31명, 의료계 26명, 사교육 관련자 22명, 대형 음식점 및 예식장 8명, 고급 유흥업소 20명, 건축·임대업자 19명, 가공원가 계상업체 10명, 관광상품, 귀금속 판매 등 신규 호황업체 15명이다.

전문직 중에서는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성공보수금, 신고대행수수료 등의 수입을 일부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4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탈루세금 2030억원(1인당 4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삼성 고성능 카메라 3종 출시 삼성전자가 다양한 기능과 고성능을 갖춘 콤팩트 카메라 신제품 3종(WB210, ST6500,PL170)을 출시했다. 삼성전자 도우미가 서초동 삼성전자 홍보관 딜라이트에서 콤팩트 카메라 신제품 3종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산자물가지수 2년3개월來 최고

2월, 전년비 6.6% 올라

곡물·석유류 급등 여파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2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2011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6.6%가 올라 2008년 11월 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대비 증가율은 0.7%로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올랐으나 상승폭은 다소 둔화했다.

생산자물가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하될 때 잡히는 일종의 ‘도매물가’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이병두 차장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공산품은 전년 같은 달보다 7.8%, 전월보다 1.2%가 상승했다.

제품별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은 석유제품 16.9%, 화학제품 12.5%, 1차 금속제품 20.1%이었다.

석유제품은 등유(28.1%)와 나프타(26.0%), 화학제품은 파라크실렌(54.1%)과 테레프탈산(48.5%), 1차 금속제품은 나동선(42.7%)과 강판 절단품(34.7%)의 증가율이 높았다. 농림수산품은 채소와 과실은 하락한 반면 곡물과 축산물은 올라 전년 같은 달보다 20.8%, 전월보다는 0.4%가 올랐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81.58 (-19.89)
▼ 코스닥지수	522.17 (-0.53)
▼ 금리 (국고채 3년)	3.71% (-0.12)
▲ 원·달러 환율	1,121.80원 (+6.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무협, 지역 중소 수출업체에 저리 융자

연 4% … 최고 3억까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백재선)는 10일 중소 수출업체의 금융 애로 해결을 위한 무역기금 저리 융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기금은 무역협회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자체 조성한 자금으로 신청 업체 수에 따라 각 지역본부에 추천 한도를 배정하고 있다.

융자 대상기업은 무역협회 회원사 가운데 2010년도 수출 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인 업체다. 융자 조건은 2년 기간(1년거치. 연 4회 균등 분할 상환)에 금리 연 4%로, 업체별 융자 한도는 3억원이다.

무역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또는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신청한 후 수출실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gj.kita.net)에 제출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첨단자이 2차’ 분양

평균 13.9대 1 경쟁

GS건설은 10일 올해 광주지역 첫 분양단지인 ‘첨단자이 2차’의 분양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546가구 모집에 7584명이 몰려 평균 13.9대 1로 전 평형 마감됐다고 밝혔다.

첨단자이 2차는 지난 4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이후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분양신청을 받았다. 회사측은 신청기간 내내 실수요자와 투자수요가 몰려 모델하우스가 북새통을 이뤘다고 전했다.

GS건설 관계자는 “2009년 이후 광주 지역에 신규 물량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값이 상승했고 미분양 물량도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오랜만에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가 공급돼 관심을 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첨단자이 2차는 전용면적 84㎡A형 468가구, 84㎡B형 78가구 등 총 546가구 규모다. 내년 8월 입주 예정이며, 인근 첨단자이 1차와 함께 1140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11일 당첨자발표 후 오는 14~16일간 계약을 받는다. 문의 062-368-202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기존의 습기제거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light(자외선)를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게모르게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 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